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양 계 민**

초 록

본 논문은 한민족 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 3,140명을 대상으로 한민족정체성의 두요인(단일민족정체성, 문화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를 독립변인으로 놓고 종족배제주의 및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단일민족정체성과 자민족 중심주의는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문화민족정체성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계해야 할 가치는 단일민족정체성이고 문화민족정체성은 오히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한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 다문화주의, 다문화수용성, 소수집단, 종족배제주의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8고유과제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의 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수정 및 재분석한 것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서 론

민족 정체성¹⁾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 대한 지식과 그 집단의 구성원임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Tajfel, 1981) 또는 공유된 민족적 특성으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특정 민족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Shibutan & Kwan, 1966; Phinney, 1990)으로 정의될 수 있다. 민족 정체성은 한 개인이 자기 민족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일반 지식, 신념, 기대들을 형성하고, 그 사람이 사물, 상황, 타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를 해석하느냐를 결정짓는 인지적 정보처리적 틀/framework) 또는 필터(filter)로써 기능하며 그 사람의 행위기준이 된다는 점에서(Uba, 1994) 단순한 소속감이나 정서적 의미를 넘어 자신의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정체성은 자신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윤인진, 1998) 개인이나 집단을 주변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규정하는 기능을 하고 볼 수 있는 것이다(정영훈, 2002).

한국사회는 일찍부터 혈연적 문화적 공동기반과 단일국가 안에서 살아온 역사 속에서 민족적 동질성과 공동운명의식을 키워왔는데, 한국인의 경우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고 있어서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이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²⁾ 이 때 혈연적 뿌리를 같이 하는 민족연대성과 공동체적 결속을 강조하는 수단의 하나는 한국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거나 한국민족에 대한

1) 민족정체감(ethnic identity)과 유사한 인종정체감(race identity)은 특정한 인종집단이 지닌 공동된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각에 근거한 집단정체감으로 정의되기는 하지만(Helms, 1990c), 사실상 두 개념은 아주 유사하여 구분하기 어렵고 서로 바꾸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인종(race)과 민족(ethnicity)은 다르며, 민족집단보다 인종집단이 훨씬 더 적고, 반대로 민족 집단 내에 여러 인종집단이 존재하기도 한다(U. S. Census Bureau, 2000).

2) 국민정체성은 혈통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ethnic nation'의 요소와 정치적-법적 측면을 강조하는 'civic nation'의 요소가 혼재하고 있는데, 'civic nation'의 요소가 정체성의 주요소가 되는 국민국가가 다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Brubaker, 1992; Smith, 2000). 혈통적-문화적 특성은 귀속적(ascriptive)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반면, 정치적-법적 특징은 선택적(voluntaristic)이고 성취된(accomplished)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변화가 용이하며, 따라서 정치적-법적 요소를 국민의 요건으로 생각하는 경우 타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최현, 2007).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한국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껏 존재한 이유를 ‘문화민족’으로서의 한민족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거나, 경제, 군사,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국으로 될 가능성이 없지만 ‘문화민족’이라는 측면에서는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문화적 측면에서 민족적 우월성을 찾으려는 시도(윤경로, 2004), 한민족이 독립정신과 귀소의식이 강하며 타민족들에서 비하여 뿌리가 깊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이 높다는(배대한, 1994)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민족의 우수성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민족 정체성은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윤인진, 2002), 한국인들이 각국에 대한 언어적·문화적 동화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족정체성과 애착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족성이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서 직업, 결혼, 교우관계, 신앙 등 자신의 생활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사회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각국에서 특정한 소수 민족집단의 성원으로 구별되고 인식되는 과정과 그 결과가 재외 한인의 민족정체성 형성과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족 정체성은 소수집단이 다수집단 속에서 자신의 존중감을 유지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실제 아시안계 미국인들의 민족정체성을 조사한 결과 강한 민족 정체성을 지닌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는 경향이 있었다(Uba, 1994).

이렇듯 한민족정체성은 오랜 시간 국내외 한국민족의 뿌리를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가치로 생각되어왔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해외교포 자녀세대의 경우 민족정체성 교육 및 한국어 및 문화보급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든가(이광규, 1995), 한민족 의식을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갖는 것과 한민족이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것, 그리고 한민족이 공동의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보고, 한국이 중국의 대중화주의와 같은 세계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의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이광규, 2005)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 및 인구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국가 간 경계의 개념이 약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한반도의 지역적 테두리 내에 존재하는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밖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을 제대로 연계

시킬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한반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한 민족정체성을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조혜영, 2002). 더 나아가 민족정체성의 상실은 민족의 소멸로 이어지며, 민족의식의 약화와 소멸이 고 유문화나 민족의 외적 특성의 유지 및 계승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한 민족공동체 형성에 필수조건인 민족정체성을 보전 및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재외동포 사회에서 민족문화나 민족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위태로운 지경’이라는 위기의식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정영훈, 2002). 이렇듯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의 민족 정체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 및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사업의 대상이었고,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한국계 동포들까지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체성을 강화하고 소멸을 막아야 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이었다.

한편 민족정체성의 기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우선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이 집단으로 작용할 경우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으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Maddens, Billiet, 그리고 Beerten, 2000). 예를 들면 민족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정치, 문화적 인내성(tolerance)의 수준이 낮으며(Weldon, 2006), 영국청소년들의 경우 민족정체성이 높을 수록 망명자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ehrson, Brown, 그리고 Zagefka, 인쇄중). 또한 Pehrson, Vignoles, Brown (2009)이 세계 3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정체성과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민족정체성이 편견과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³⁾ 그러나 개인내적 차원에서 볼 때 민족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Aries & Moorehead, 1989; Phinney, 1990; Phinney & Alipuria, 1990; Phinney & Rosenthal, 1992), 주로 긍정적 측면을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소수민족 청소년에게 있어서 문화 정체성과 문화적응관계는 그들의 심리적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McLoyd, 1998), 문화적정체성이 개인의 자기인식과 자기정체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자기개념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고 특히 소수 민족 청소년에게는 더욱 중요한 자기개념의 요소가 된다는 연구(Phinney & Chavira, 1992; Khanlou와 Hajdukowski-Ahmed, 1999; Vedder, 2005), 이주 청소년들이 지니는 문화

3) 시민국가정체성(civic identity)은 오히려 편견의 수준이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ddens, Billiet, 그리고 Beerten, 2000).

정체성의 정도는 자존감, 자아정체성,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등의 다양한 심리적 안녕 지표와 일관되게 정적관계가 있다는 연구(Phinney와 Chavira, 1995; Umana-Taylor, Diversi, & Fine, 2002), 문화 정체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문화 정체성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자존감과 위협적 요소(예, 인종차별, 편견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Phinney & Chavira, 1992)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정체성이 소수 민족 이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될 수 있으며(Vedder, 2005), 소수 민족 집단에게서 소수 민족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Phinney, Cantu & Kurtz, 1997). 물론 Kuo와 Tsai(1986)는 동족간의 조직망에 대한 강한 결속력과 관련성이 오히려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는 데 역기능적일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자민족 정체성이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주로 소수집단의 정체성이 사회적·개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소수집단이든 다수집단이든 사회 내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민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체감형성은 청소년기에 직면한 중요한 발달과업이기에(Josselson, 1994; Spencer, Swanson, & Cunningham, 1991; Swanson, Spencer, & Petersen, 1997) 민족(ethnicity)을 의식하고 살게 되는 다문화적 사회 환경 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이라는 것을 단순히 시대착오적인 가치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며,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떤 내용의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에 토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근래에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국사회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작용하는 부정적 요소로 순혈주의 정체성이 꼽히고 있다.⁴⁾ 사실상 문제가 되는 인식은 순혈주의적 태도이지만 한국인의

4) 예를 들면, 시민일보 2008년 12월 16일자 오피니언 란에는 “한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순혈주의적 사회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자랑하지만 역설적으로 타민족에 대해서는 강한 배타성(排他性)을 보여준다. 민족적 자긍심이 헤아리기 어려운 역사적 성과의 원동력이 되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반대급부로 나타난 배타성이 세계화 시대의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글이 실려 있다.

경우 국가 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일치하고 있고, 한민족 정체성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순혈주의적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한민족 정체성 자체가 혈통적으로 한민족이 아닌 이주자들을 차별하고 배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한민족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마치 다문화 글로벌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를 지닌 것이고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한민족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 내지는 없애야 할 개념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이게끔 하여, 일부 국민은 다문화주의가 한민족정체성을 없애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 것으로 받아들여 불안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민족정체성의 구성개념 자체를 순혈주의 정체성으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영역의 정체성을 구분하여 연구한 바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인이 혈통주의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명제 역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지만, 오히려 한국인이 혈통주의적이라는 명제를 반박하는 연구도 있다. 장태한(2001)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의 인종과 민족선호도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이 다의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고, 설동훈과 정태석(2002)의 연구에서는 북한과 북한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세대별로 비교하면서 한국인의 혈통적 국민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정기선(2004)도 한국의 국민정체성을 혈통주의로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특히 최현(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단일민족과 동질적 혈통을 중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정치적 법적 요인이 국민정체성의 요인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즉,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이나 ‘한국에서 출생한 것’보다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과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을 더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혈통주의적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법적 정체성 역시 확고하지 않아서 한국인에 대한 정의가 혼돈스럽고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최현, 2007).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들어 증가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를 조사한 최훈석, 양애경, 이선주(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극적이거나 수용적인 태도와, 한국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데려온 사람들이므로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좀 더 나아가 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

에 대해서는 ‘한국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거나 ‘투표권을 주는 것은 무리’라는 태도를 보여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왔지만 ‘진짜 한국인’은 아니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실제 한민족정체성 자체가 다문화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소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앞서 한민족정체성 중 순혈주의정체성과 그 외의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민족정체성의 구성요소 중 다문화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소와 도움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각 요소의 특성과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민족정체성과 더불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개념으로 자민족 중심주의가 있다.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다른 집단을 평가하고 해석하며, 자신과 다른 집단은 배척하고 동일한 집단은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전경숙, 박혜정, 2005). 자민족중심주의의 개념은 Summer(1906)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는 집단에 대한 애정과 충성을 기준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고, 내집단에 대한 선호적 태도가 외부집단에게 비선호적인 태도로 작용한 결과 나타나는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다. Shimp와 Sharma(1987)는 자민족중심주의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다른 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자신이 속한 문화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은 열등한 것으로 보는 경향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자민족중심주의는 애국이나 보수 성향과 매우 관련이 높은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Shimp & Sharma, 1987; Sharma, Shimp, & Shin, 1995). 따라서 한 집단 고유의 윤리, 국가의 상징성 및 가치가 자존심 형성의 근거가 되고, 반면에 다른 집단의 상징은 경멸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Levine & Campbell, 1972). 이러한 개념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집단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의 이익은 무시해도 좋다는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자민족중심주의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색인종보다는 백인이, 남정보다는 여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 1988).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Dornoff, Tankersley, & White, 1974) 일치하지 않는 결과도 있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측정상의 문제로 추측되고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한민족정체성과는 같은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민족정체성

이 지나치게 강화되었을 때 자민족중심주의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교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한민족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수용성 및 타문화 배타성과 관련되기 쉽다. 예를 들면, 한국청소년개발원(2002)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적 요인으로 자민족중심주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민족중심주의가 약할수록 외국인에 대한 수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민족정체성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자민족중심주의를 함께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민족 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점수 상으로 얼마나 높은가의 문제가 아니고, 한민족 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한민족 정체성이 다문화사회에서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면 지양해야 할 가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문제시 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며, 자칫 다문화교육의 방향자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 정체성이 국내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다문화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전국의 강원, 경기, 경상, 서울, 전라, 충청 등 전국 6개 시도의 초등학생이 746명, 중학생이 1,221명, 고등학생이 1,173명 등 총 3,140명이었다. 대도시에서 56.6%, 중소도시 28.5%, 군지역 14.9%를 표집하였고,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547명(49.3%), 여학생이 1,586명(50.5%)으로 각각 50% 수준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학교급별 성별 분포

집단	남자	여자	무응답	전체
초등학교	366(49.1)	379(50.8)	1(.1)	746(100)
중학교	623(51.0)	592(48.5)	6(.5)	1,221(100)
고등학교	558(47.6)	615(52.4)	-	1,173(100)
전체	1,547(49.3)	1,586(50.5)	7(.2)	3,140(100)

2. 측정도구

1)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정체성은 양계민(2009)의 한민족정체성 측정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한민족정체성은 크게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요인분석결과에서 산출된 요인 중 하나는 단일민족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민족 정체성이었다. 단일민족정체성은 한국인이 단일민족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우리나라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으로서 순수성이 높은 국민이다’,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인은 가능한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신뢰도는 $\alpha=.84$ 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문화민족정체성은 ‘한국인은 탁월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종교와 사상을 꽃피운 자랑스런 민족이다’, ‘한국인은 문화민족이다’, ‘나는 한국의 문화가 자랑스럽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세계 어느 민족의 문화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8$ 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표 2> 한민족정체성 문항의 요인분석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α
		1	2	
단일 민족 정체성	한국인은 단일민족으로서 순수성이 높은 국민이다		.73	.84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72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68	
	나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		.67	
	우리나라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65	
	한국인은 가능한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42	
문화 민족 정체성	한국인은 문화민족이다	.75		.88
	나는 한국의 문화가 자랑스럽다	.75		
	우리 민족은 우수한 종교와 사상을 꽃피운 자랑스런 민족이다	.74		
	한국인은 탁월한 민족이다	.67		
	한국의 전통문화는 세계 어느 민족의 문화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7		

2) 자민족중심주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는 한국청소년개발원(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역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고도의 기술과 책임이 따르는 일보다 수공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일에는 동남아시아나 중국 사람들에게 적당하다’는 문항은 개념상 자민족중심주의라고 보기에 타당하지 않는 문항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포함하고 있기에 삭제하였다. 나머지 5문항인 ‘지구의 자연환경 보호보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일이 우선이다’, ‘세계 인류를 위한 일이라도 우리나라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을 더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 문화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강국이 되어야 한다’에 대해 ‘전혀 아니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요인 분석 결과 1개의 단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문항의 신뢰도는 .73이었다.

3) 종족배제주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측정변인으로 소수집단에 종족배제주의를 측정하였다. 종족배제주의 척도는 유럽 국가들의 인종적 편견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EUMC(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의 보고서에서 ‘종족적 배제주의’라고 정의한 개념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에서 번역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4문항이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두 개의 요인에 걸린 ‘외국인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의 문항과 요인부하량이 .3이하인(.242)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항, 그리고 원래 척도에서는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요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주로 인한 위협’의 요인으로 묶인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국과는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은 버려야한다’의 총 세 문항을 제거하고 총 11개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주로 인한 위협’, ‘이주자 시민권 찬성’,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이주자 송환정책 찬성’의 네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이주자 송환정책 찬성(.51)을 제외하고는 모두 .70 이상으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이 중 신뢰도가 지나치게 낮은 ‘이주자 송환정책 찬성’의 요인은 본 분석에서 삭제하고, ‘이주로 인한 위협’, ‘이주자 시민권 찬성’,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이주자 송환정책 찬성’의 네 가지 요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 종족배제주의 척도 요인분석결과

요인	문 항	요인 부하량				α
		1	2	3	4	
이주로 인한 위협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75				.78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71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64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59				
이주자 시민권 찬성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84			.77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64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α
		1	2	3	4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63			
다문화 사회의 긍정성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80		.78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			.73		
이주자 송환정책 찬성	불법근로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80	.51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38	

4)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변인으로 한국사회의 소수집단 중 주로 한국 내에서 문화적 인종적 배경준거에 의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네 집단, 즉,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중국조선족을 대상으로 하고, 각 집단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청소년들의 경우 새터민이나 국제결혼가정자녀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새터민의 경우 괄호안에 ‘탈북자’라는 용어를 함께 제시하였고, 국제결혼가정자녀는 ‘혼혈’이라는 용어를 함께 제시하였다.

인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중 인지적 측면은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기존의 문헌에서 밝혀진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유능성, 도덕성, 성실성, 공격성, 신뢰성, 공손함 등 6가지 요인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문항 각각 2가지씩 제작하여 총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신뢰할 수 있다’, ‘거부감이 든다’, ‘친절하다’, ‘거만하다’, ‘유능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도덕적이다’, ‘게으르다’, ‘합리적이다’, ‘감정적이다’, ‘평화적이다’, ‘폭력적이다’ 등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었다. 요인분석 결과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의 두 요인이 산출되었고, 그 중 ‘감정적이다’의 문항은 본래 부정적인 의

미로 포함시켰는데, 분석결과 두 요인에 유사한 정도의 요인부하량을 보였고, 오히려 긍정적 태도의 부하량이 높은 등 연구자의 가정과 다른 측면을 보여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삭제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를 보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긍정적 태도가 $\alpha=.83$ 이고 부정적 태도가 $\alpha=.75$ 로 신뢰로운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대상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국제결혼가정 자녀 대상 긍정적 태도요인의 신뢰도와 부정적 태도요인의 신뢰도가 각각 $\alpha=.86$, $.75$, 새터민 대상일 때 $\alpha=.86$, $.82$, 중국조선족 대상일 때 $\alpha=.89$ 와 $.83$ 임)

정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중 정서적 측면은 역시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긍정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 연민정서 3문항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내용으로 보면 ‘정이 간다’, ‘불쌍하다’, ‘피하고 싶다’, ‘호기심이 생긴다’, ‘가엾다’, ‘안되보인다’, ‘싫다’, ‘좋다’, ‘두렵다’ 등이었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연구자가 사전에 의도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다.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정서적 요인 중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긍정적 정서가 $\alpha=.79$, 부정적 정서가 $\alpha=.81$, 연민정서가 $\alpha=.89$ 로 전반적으로 신뢰로운 수준이었고 다른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한 수준이었다(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연민정서의 순으로 $\alpha=.74$, $.85$, $.90$, 새터민 대상일 경우 $\alpha=.78$, $.80$, $.89$, 조선족이 대상인 경우 $\alpha=.77$, $.82$, $.89$ 임)

행동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중 행동적 측면은 Bogardus(1925)의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는데, 소수집단에 대해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연인이 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등의 총 다섯 개 문항을 구성하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응답으로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alpha=.84$ 였고, 다른 집단에 대한 응답으로 산출한 결과는 모두 $.84$ 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척도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제결혼가정 자녀대상 $\alpha=.88$, 조선족 대상 $\alpha=.88$, 새터민 대상 $\alpha=.88$).

Ⅲ. 결 과

1. 한민족 정체성, 문화민족 정체성, 자민족 중심주의의 연령집단별 평균 차이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을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연령집단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연령의 수준을 무시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파악하기에는 청소년집단의 발달수준 차이가 매우 크고, 본 논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청소년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한민족정체성, 문화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의 연령집단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세변인 모두에서 초등학생의 한민족정체성, 문화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경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의 경우는 초등학생집단에 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집단이 유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민족정체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한민족 정체성, 문화민족 정체성, 자민족 중심주의의 연령집단별 평균 차이

변인 \ 집단	초등학생 (N=746)	중학생 (N=1,221)	고등학생 (N=1,173)	전체 (N=3,140)	F
문화민족정체성	4.06(.67) _a	3.74(.80) _b	3.70(.80) _b	3.80(.78)	52.61***
단일민족정체성	3.62(.73) _a	3.37(.84) _b	3.19(.90) _c	3.36(.86)	58.64***
자민족중심주의	3.15(.79) _a	2.93(.84) _b	2.94(.84) _b	2.99(.83)	18.77***

*** p<.001, Duncan: a>b>c

2. 다문화수용성의 연령집단별 평균 차이

다문화수용성의 연령집단별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으며, 이주자에게 시민권을 주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이 초등학생보다 높았다. 이주로 인한 위협은 세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표 5> 다문화수용성의 연령집단별 평균 차이

변인	집단	초등학생 (N=746)	중학생 (N=1,221)	고등학생 (N=1,173)	전체 (N=3,140)	F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3.52(.96) _a	3.39(.97) _b	3.46(.94) _{ab}	3.45(.96)	3.65*
이주자 시민권찬성		3.42(.80) _b	3.54(.86) _a	3.56(.85) _a	3.52(.84)	5.73**
이주의 위협		2.69(.85)	2.72(.81)	2.73(.81)	2.71(.83)	-

* p<.05, ** p<.01, *** p<.001, Duncan: a>b>c

3. 한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가 종족배제주의에 미치는 영향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단일민족정체성, 문화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속변인을 종족배제주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하기 이전에 한민족 정체성의 하위요인인 문화민족정체성과 단일민족정체성의 다중공선성을 우선적으로 검증한 결과 Tolerance가 .05보다 크고, VIF가 2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에 대해 문화민족 정체성은 정적 영향을 자민족중심주의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자민족중심주의와 단일민족 정체성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민족 정체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의 위협을 느끼는 데는 자민족중심주의와 단일민족정체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문화민족 정체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종족배제주의에 미치는 영향: 전체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ΔR^2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문화민족정체성	.28	14.84***	.069	-
	자민족중심주의	-.05	-2.68**	.071	.002**
이주자 시민권 찬성	문화민족정체성	.30	13.08***	.048	-
	자민족중심주의	-.10	-4.65***	.061	.013***
이주의 위협	단일민족정체성	-.08	-3.19***	.064	.003**
	자민족중심주의	.33	16.63***	.113	-
	문화민족정체성	-.17	-7.52***	.122	.009***
	단일민족정체성	.13	5.41***	.131	.009***

* p<.05, ** p<.01, ***p<.001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집단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연령집단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는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에 대해서는 문화민족정체성과 단일민족정체성이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자의 시민권에 대한 찬성에는 문화민족정체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위협에 대해서 자민족중심주의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는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에 대해서는 문화민족정체성이 정적 영향을 자민족중심주의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주자 시민권 찬성에 대해서는 문화민족정체성이 정적인 영향을, 자민족중심주의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주의 위협에 대해서는 자민족중심주의와 단일민족정체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문화민족정체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집단은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에 대해서는 문화민족정체성 하나만이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자의 시민권 찬성에 대해서는 단일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부적 영향을, 문화민족정체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의 위협에 자민족중심주의와 단일민족정체성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문화민족정체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종족배제주의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ΔR^2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문화민족정체성	.27	6.37***	.110	-
	단일민족정체성	.11	2.68**	.120	.009**
이주자 시민권 찬성	문화민족정체성	.19	4.92***	.034	-
이주의 위협	자민족중심주의	.26	13.96***	.070	-

* p<.05, ** p<.01, ***p<.001

<표 8>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종족배제주의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ΔR^2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문화민족정체성	.27	8.60***	.056	-
	자민족중심주의	-.08	-2.57**	.062	.005**
이주자 시민권 찬성	문화민족정체성	.32	10.21***	.077	-
	자민족중심주의	-.10	-3.20**	.085	.008**
이주의 위협	자민족중심주의	.33	10.01***	.101	-
	문화민족정체성	-.19	-4.95***	.114	.013***
	단일민족정체성	.12	2.90**	.120	.007**

* p<.05, ** p<.01, ***p<.001

<표 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종족배제주의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ΔR^2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문화민족정체성	.25	8.53***	.062	-
이주자 시민권 찬성	문화민족정체성	.34	9.84***	.044	-
	단일민족정체성	-.17	-4.41***	.079	.035***
	자민족중심주의	-.12	-3.78***	.091	.012***
이주의 위협	자민족중심주의	.37	11.95***	.169	-
	단일민족정체성	.19	5.43***	.177	.008**
	문화민족정체성	-.17	-5.28***	.197	.020***

* p<.05, ** p<.01, ***p<.001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한민족 정체성 중 단일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는 다문화수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문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4. 한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변인으로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화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지측면에 대하여 문화민족정체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민족 중심주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지태도가 높고, 자민족 중심주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지태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소수집단의 대상일 경우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인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지태도의 경우는 역시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지태도가 높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인지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인지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의 정서적 측면 중 긍정적 정서의 경우 네 개의 소수집단 전반에 걸쳐서 역시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태도가 높아지고,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터민의 경우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태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부정적 정서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태도가 높아지고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아지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태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족의 경우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터민의 경우는 각각의 독립변인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상마다 서로 다른 심리적 거리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민의 정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연민의 정서가 높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연민의 정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새터민, 조선족의 경우

는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연민의 정서를 많이 느끼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연민정서를 덜 느끼며, 단일민족 정체성을 지닐수록 연민의 정서를 역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네 개의 소수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의 경우 각 소수집단과 어느 정도 관계를 친밀하게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단일민족정체성, 문화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를 멀게 지각하고 있었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각 집단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단일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각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멀게 지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각 연령별로 인지적 발달수준과 경험의 폭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여 초·중·고등학교별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 긍정적 인지태도에 대해서는 주로 문화민족정체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자민족중심주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터민의 경우는 세 개의 독립변인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지태도의 경우 역시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지태도가 높아지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인지태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터민의 경우는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지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민족정체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체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ΔR^2
인지 긍정	외국인노동자	단일민족정체성	-.05	-2.09*	.016	-
		자민족중심주의	-.13	-6.52***	.030	.014
	국제결혼 가정자녀	문화민족정체성	.17	8.85***	.015	-
		자민족중심주의	-.14	-7.48***	.033	.018
새터민	문화민족정체성	.13	6.92***	.013	-	
	자민족중심주의	-.07	-3.44***	.016	.003	
조선족	문화민족정체성	.18	9.30***	.023	-	
	자민족중심주의	-.08	-4.17***	.029	.006	
인지 부정	외국인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21	11.00***	.028	-
		문화민족정체성	-.12	-6.56***	.042	.014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8	9.05***	.029	-
		문화민족정체성	-.14	-6.36***	.040	.011
새터민	단일민족정체성	.06	2.65**	.042	.001	
	자민족중심주의	.15	7.80***	.019	-	
조선족	문화민족정체성	-.04	-2.05*	.020	.001	
	자민족중심주의	.17	8.76***	.020	-	
정서 긍정	외국인 노동자	문화민족정체성	.16	8.14***	.014	-
		자민족중심주의	-.12	-6.32***	.027	.013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4	-7.35***	.012	-
		문화민족정체성	.10	5.32***	.021	.009
새터민	자민족중심주의	-.10	-4.63***	.007	-	
	문화민족정체성	.12	5.40***	.015	.008	
조선족	단일민족정체성	-.05	-2.06***	.017	.002	
	문화민족정체성	.11	5.90***	.009	-	
조선족	자민족중심주의	-.06	-3.32***	.012	.003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07	-3.75***	.003	-
문화민족정체성		문화민족정체성	.05	2.51*	.005	.002
	국제결혼 가정자녀	단일민족정체성	.12	5.27***	.006	-
조선족		문화민족정체성	-.08	-3.31***	.009	.003
	조선족	단일민족정체성	.04	-2.29*	.002	-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ΔR^2
정서 연민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18	9.61***	.022	-
		문화민족정체성	-.11	-5.67***	.032	.010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4	7.04***	.020	-
		문화민족정체성	-.18	-8.03***	.033	.013
		단일민족정체성	.11	4.61***	.040	.007
		새터민	자민족중심주의	.09	4.24***	.006
	문화민족정체성		-.14	-6.07***	.015	.009
		단일민족정체성	.07	2.83**	.017	.002
		조선족	자민족중심주의	.12	5.62***	.010
	문화민족정체성		-.13	-5.49***	.019	.009
		단일민족정체성	.05	1.98*	.020	.001
		사회적 거리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14	-6.73***
문화민족정체성	.11			5.00***	.024	.007
	단일민족정체성		-.06	-2.50*	.026	.002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5	-7.25***	.027
문화민족정체성			.16	7.09***	.034	.007
	단일민족정체성		-.15	-5.97***	.045	.011
	새터민		자민족중심주의	-.12	-5.61***	.016
문화민족정체성			.17	7.42***	.025	.009
	단일민족정체성		-.13	-5.47***	.034	.009
	조선족		자민족중심주의	-.12	-5.73***	.014
문화민족정체성			.17	7.36***	.025	.011
	단일민족정체성		-.11	-4.48***	.031	.006

* p<.05, ** p<.01, ***p<.001

정서의 경우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하여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새터민의 경우 자민족중심주의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 태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의 경우는 세 개의 독립변인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의 경우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집단에 대

해서만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에 비해 연민의 정서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세 개 집단에 대해서는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연민정서가 높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연민정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조선족의 경우는 문화민족정체성과 단일민족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연민정서가 낮고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연민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의 경우는 주로 자민족중심주의와 문화민족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개의 소수집단에 대하여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도 초등학생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긍정적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민족정체성이 정적인 영향을 자민족중심주의와 단일민족정체성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지의 경우 역시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았고, 문화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인지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는데, 전반적으로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낮아졌고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터민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의 경우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만이 세 개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민족중심주의와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높아졌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민정서의 경우는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조선족 세 집단에서 자민족중심주의와 문화민족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연민정서가 높아지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연민정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의 경우 세 개 독립변인이 모든 집단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민족중심주의와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는 멀어지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ΔR^2
인지 긍정	외국인 노동자	문화민족정체성	.19	5.04***	.030	-
		자민족중심주의	-.09	-2.31***	.038	.008
	국제결혼 가정자녀	문화민족정체성	.16	4.29***	.019	-
		자민족중심주의	-.12	-3.11**	.038	.019
	조선족	문화민족정체성	.15	3.76***	.015	-
		자민족중심주의	-.11	-2.81**	.026	.011
인지 부정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26	7.01***	.058	-
		문화민족정체성	-.11	-2.82**	.068	.010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21	5.49***	.036	-
		문화민족정체성	-.09	-2.45*	.044	.008
	새터민	자민족중심주의	.08	2.13*	.007	-
		문화민족정체성	-.09	-2.33*	.016	.008
정서 긍정	외국인 노동자	문화민족정체성	.14	3.64***	.014	-
		자민족중심주의	-.10	-2.49*	.023	.009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6	-4.22***	.017	-
		문화민족정체성	.14	3.65***	.035	.018
새터민	자민족중심주의	-.09	-2.27*	.007	-	
	문화민족정체성	.09	2.37*	.008	-	
정서 연민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22	5.86***	.037	-
		문화민족정체성	-.13	-3.50***	.054	.017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0	2.70**	.008	-
		문화민족정체성	-.08	-2.05*	.013	.005
	조선족	문화민족정체성	-.16	-3.48***	.007	-
		단일민족정체성	.13	2.99**	.020	.013
사회적 거리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11	-2.95**	.008	-
		문화민족정체성	.10	2.68**	.018	.010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9	-4.93***	.025	-
		문화민족정체성	.14	3.57***	.042	.017
	새터민	자민족중심주의	-.12	-3.20***	.011	-
		문화민족정체성	.08	2.06*	.017	.006
조선족	자민족중심주의	-.14	-3.76***	.015	-	
	문화민족정체성	.10	2.68**	.025	.010	

* p<.05, ** p<.01, ***p<.001

<표 12>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ΔR^2
인지 긍정	외국인 노동자	문화민족정체성	.15	4.93***	.012	-
		자민족중심주의	-.12	-3.93***	.025	.013
	국제결혼 가정자녀	문화민족정체성	.17	5.61***	.017	-
		자민족중심주의	-.13	-4.11***	.031	.014
	새터민	문화민족정체성	.22	5.80***	.029	-
단일민족정체성		-.08	-2.03*	.033	.029	
	조선족	문화민족정체성	.17	5.98***	.030	-
인지 부정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20	6.40***	.025	-
		문화민족정체성	-.11	-3.63***	.036	.011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22	7.03***	.035	-
		문화민족정체성	-.08	-2.73**	.041	.006
	새터민	자민족중심주의	.20	7.08***	.042	-
문화민족정체성		-.09	-2.79**	.046	.006	
	조선족	자민족중심주의	.23	7.49***	.040	-
		문화민족정체성	-.09	-2.79**	.046	.006
정서 긍정	외국인 노동자	문화민족정체성	.12	3.88***	.007	-
		자민족중심주의	-.10	-3.34***	.017	.010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0	-3.22***	.005	-
		문화민족정체성	.08	2.45*	.011	.006
	새터민	문화민족정체성	.18	4.72***	.010	-
단일민족정체성		-.13	-3.26***	.019	.009	
	조선족	문화민족정체성	.10	3.36***	.010	-
정서 부정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4	4.17***	.020	-
		문화민족정체성	-.11	-2.87**	.024	.004
		단일민족정체성	.08	1.99*	.027	.003
정서 연민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16	5.07***	.017	-
		문화민족정체성	-.07	-2.32*	.022	.005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8	5.39***	.026	-
		문화민족정체성	-.19	-5.00***	.042	.016
		단일민족정체성	.10	2.41*	.047	.005
	새터민	자민족중심주의	.14	4.42***	.009	-
		문화민족정체성	-.11	-3.64***	.021	.012
	조선족	자민족중심주의	.14	4.47***	.011	-
문화민족정체성		-.11	-3.33***	.020	.009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ΔR^2
사회적 거리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10	-2.87**	.010	-
		문화민족정체성	.14	3.69***	.016	.006
		단일민족정체성	-.10	-2.49*	.022	.006
	국제결혼 가정 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1	-3.33***	.013	-
		문화민족정체성	.24	6.31***	.031	.018
		단일민족정체성	-.17	-4.17***	.046	.015
	새터민	문화민족정체성	.22	5.74***	.011	-
		단일민족정체성	-.13	-3.18**	.027	.016
		자민족중심주의	-.08	-.08*	.032	.005
	조선족	문화민족정체성	.22	5.73***	.013	-
		단일민족정체성	-.12	-2.89**	.027	.014
		자민족중심주의	-.08	-2.26*	.031	.004

* p<.05, ** p<.01, ***p<.001

고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긍정적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민족 중심주의와 문화민족 정체성으로 네 개의 소수집단 모두에서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지태도는 낮아지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인지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지태도에서도 역시 자민족 중심주의와 문화민족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집단 모두에서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지태도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터민을 제외한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 가정자녀, 조선족의 경우는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인지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태도를 보면, 긍정적 정서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족을 제외한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집단의 경우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의 경우는 외국인노동자와 새터민의 경우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태도가 높아지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태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조선족의 경우는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을 때 부정적 정서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민정서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연민정서가 높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연민정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단일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연민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네 개의 집단 모두에서 세 개의 독립변인이 사회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민족중심주의와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가 멀어졌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ΔR^2
인지 긍정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15	-5.00***	.013	-
		문화민족정체성	.13	4.16***	.128	.115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7	-5.62***	.015	-
		문화민족정체성	.17	5.50***	.040	.025
	새터민	문화민족정체성	.16	5.11***	.015	-
		자민족중심주의	-.11	-3.60***	.027	.012
	조선족	문화민족정체성	.19	6.30***	.027	-
		자민족중심주의	-.10	-3.29***	.036	.009
인지 부정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19	6.17***	.025	-
		문화민족정체성	-.10	-3.33***	.035	.010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20	6.55***	.028	-
		문화민족정체성	-.11	-3.71***	.039	.011
	새터민	자민족중심주의	.10	3.52***	.011	-
	조선족	자민족중심주의	.14	4.51***	.014	-
문화민족정체성	-.07	-2.14*	.018	.004		
정서 긍정	외국인 노동자	문화민족정체성	.19	6.05***	.019	-
		자민족중심주의	-.15	-4.99***	.040	.021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5	-4.89***	.013	-
		문화민족정체성	.13	4.12***	.027	.014
	새터민	자민족중심주의	-.14	-4.62***	.010	-
		문화민족정체성	.13	4.35***	.027	.017
조선족	문화민족정체성	.14	4.82***	.020	-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 ²	ΔR^2
정서 부정	외국인 노동자	문화민족정체성	.12	4.03***	.008	-
		자민족중심주의	-.11	-3.51***	.019	.008
	국제결혼 가정자녀	단일민족정체성	.09	3.00**	.008	-
		새터민	자민족중심주의	-.09	-2.87**	.004
		문화민족정체성	.08	2.73**	.011	.007
	조선족	단일민족정체성	.10	3.37***	.010	-
정서 연민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19	6.16***	.027	-
		문화민족정체성	-.08	-2.56*	.033	.006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6	4.96***	.027	-
		문화민족정체성	-.20	-5.68***	.045	.018
		단일민족정체성	.13	3.29***	.055	.010
	새터민	문화민족정체성	-.15	-4.76***	.011	-
		자민족중심주의	.13	4.37***	.028	.017
	조선족	자민족중심주의	.18	5.70***	.022	-
		문화민족정체성	-.09	-2.86**	.029	.007
사회적 거리	외국인 노동자	자민족중심주의	-.18	-5.35***	.032	-
		문화민족정체성	.13	3.59***	.039	.007
		단일민족정체성	-.18	-2.07*	.043	.004
	국제결혼 가정자녀	자민족중심주의	-.16	-4.91***	.039	-
단일민족정체성		-.15	-3.96***	.044	.005	
문화민족정체성		.13	3.60***	.055	.011	
새터민	자민족중심주의	-.15	-4.63***	.026	-	
	문화민족정체성	.19	5.49***	.041	.015	
	단일민족정체성	-.14	-3.69***	.053	.012	
조선족	자민족중심주의	-.14	-4.23***	.022	-	
	문화민족정체성	.17	4.83***	.032	.010	
	단일민족정체성	-.13	-4.26***	.043	.011	

* p<.05, ** p<.01,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한민족정체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탐색적 연구였다.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단일민족정체성, 문화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 경향성 모두 초등학생집단이 높고, 중고등학생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민족정체성교육이 보다 심도 깊게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면 외국인이 한국에 이주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하는 태도요인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이주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에 찬성하는 태도는 중고등학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사회가 됨으로써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은 초등학생이 높고, 중고등학생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수용적이지만, 다문화사회가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다 막연하고 개념적인 가치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초등학생용 프로그램과 중고등학생용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주제는 한민족 정체성을 순혈주의를 지향하는 단일민족 정체성과 문화민족이라는 자부심에 해당하는 문화민족정체성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 한민족 정체성과 유사하지만 개념적으로 구분이 필요한 자민족중심주의를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 중 종족 배제주의를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 초·중·고등학생 집단 모두 다문화사회의 긍정성과 이주자의 시민권에 대해 찬성한다는 수용적 태도에는 문화민족정체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민족중심주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국인들의 이주로 인하여 위협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는 자민족중심주의와 단일민족정체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민족 정체성 중 문화민족정체성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일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임을 나타내며, 향후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되어 감에 따라 한민족 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작으나마 시사점을 제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과 달리 단일민족 정체성이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예민한 척도를 구성하여 재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단일민족정체성, 문화민족정체성 및 자민족중심주의의 영향에서는 인지와 정서의 경우 초·중·고등학생 모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점수가 높아지고 부정적 태도 점수가 낮아지며,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태도점수가 낮아지고 부정적 태도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의 경우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결과가 달랐다.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자민족 중심주의가 높아질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고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의 결과에 더하여 단일민족정체성이 영향을 일관되게 나타냈다. 즉, 단일민족정체성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이 한민족정체성에 대하여 중·고등학생집단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과 관련되는 결과로 향후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초등학생을 중고등학생과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연령집단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한민족 정체성 중 높은 단일민족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다문화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낮아지고 이주자의 시민권을 반대하며 이주자들의 입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수집단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족 정체성이 편견과 관련이 있다는 Pehrson, Vignoles, Brown (200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기존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던, 또는 오히려 강조하여 주입되던 한민족정체성이 갑자기 시대착오적인 가치가 되는 혼란

스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민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을 하고, 개인의 개인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에 어떤 형태이든지 민족정체성 또는 국가정체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보다 바람직하고 다문화사회에 역행하지 않는 민족정체성 또는 국가정체성 모색이 필요할 것인데, 연구결과 단일민족 정체성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한민족 정체성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국가정체성의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문화민족정체성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청소년 대상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국민국가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인이 문화민족이라는 긍정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교육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민족 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실시된 탐색적 연구에 불과하며, 한민족 정체성 중 단일민족 정체성과 문화민족 정체성을 중심으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보다 다양한 영역의 개념을 파악하고 Phinney(1989)의 민족정체감 발달단계이론에 근거하여 연령별 발달수준을 고려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한국의 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민족정체성의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박준식, 이재혁, 한준 (1999).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의식조사.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 배대한 (1994). 한민족의 정체성문제와 교육개발. 해외동포, 제63권, pp. 20-25.
- 설동훈, 정태석 (2002).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사상, 제54호, pp. 28-52.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제2호, pp. 59-79.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윤경로 (2004). 미주한인사회의 초기 구국운동과 한민족의 정체성: 1910년대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심포지움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윤인진 (1998). 재미한인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의 세대간 차이. 재외한인연구, 제6호, pp. 66-95.
- 윤인진 (2002). 세계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정체성의 비교연구. 재외한인연구, 제12권 제1호, pp. 5-64.
- 이광규 (1999). 해외교포와 한민족공동체, 민족통합과 민족통일 총서 1, pp. 149-171.
- 이광규 (2005). 세계 속 동포들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제29호, pp. 1-10.
- 장태한 (2001). 한국대학생의 인종·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형, 제11호, pp. 99-113.
- 전경숙, 박혜정 (2005). 자민족중심주의, 패션선도력의 관계 및 명품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9권 제11호, pp. 1498-1506.
- 정기선(2004).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국제비교: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불평등지각, 노동지향, 가족가치: 국제사회조사(ISSP)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정영훈(2002).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문제. 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1-13. 재외한인학회.
- 조혜영(2002). 해외동포 모국수학생에 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12권 제1호, pp. 65-114.
- 최 현(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다문화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최훈석, 양애경, 이선주(2008).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4권 제4호, pp. 39-6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합동연구총서 07-19-02*.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 한국청소년개발원(2002). 청소년의 타민족문화에 대한 태도 및 세계시민교육 방안. 연구보고 02-R06. 임성택, 주동범, 김희진.
- Aries, E., & Moorehead, K. (1989). The importance of ethnicity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of Black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s*, Vol. 65, pp. 75-82.
- Dornoff, R., Tankersley, C., & White, G. (1974). Consumers' perceptions of imports. *Akron Business and Economics Review*, Vol. 5, pp. 26-29.
- Han, C. M. (1988). The role of consumer patriotism in the choice of domestic versus foreign product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 27, pp. 25-32.
- Helms, J. E. (1990c). Introduction: Review of racial identity terminology. In J. E. Helms(Ed.s), *Black and White racial identit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3-8). New York: Greenwood Press.
- Josselson, R. (1994). The theory of identity development and question of intervention: An introduction. In S. L. Archer(Ed.), *Interventions for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pp. 12-25). Thousand Oak, CA: Sage.
- Khanlou & Hajdukowski-Ahmed, (1999)Khanlou, N. and Hajdukowski-Ahmed, M. 1999. Adolescent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promotion in a cross-cultural context. In M. Denton et al. (eds.), *Women's Voices in Health Promotion*, pp. 138-151.
- Kuo, W. H. & Tsai, Y. (1986). Social networking, hardiness, and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7, pp. 133-149.
- Levine, L. A. & Campbell, D. T. (1972). Ethnocentrism. *Theories of Conflict, Ethnic Attitudes and Group Behavior*, NY: John Wiley & Sons.
- Maddens, B., Billiet, J., & Beerten, R. (2000). National identity and the attitude toward foreigners in multinational states: The case of Belgium. *Journal of*

-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26*, pp. 45-60.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s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y, Vol. 53*, pp. 185-204.
- Pehrson, S. Vignoles, V. L. & Brown, R. (2009). National Identification and anti-immigrant prejudice: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 of national defini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72 No. 1*, pp. 24-48.
- Pehrson, S., Brown, R., & Zagefka, H. (Forthcoming). When does national identification lead to the rejection of immigrant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idence for the role of essentialist ingroup defini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 Phinney, J. (1989). Stages of ethnic identity development in minority group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9*, pp. 34-49.
- Phinney, J.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pp. 499-514.
- Phinney, J. S., & Alipuria, L. (1990). Ethnic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in four ethnic groups. *Journal of Adolescence, Vol. 13*, pp. 171-184.
- Phinney, J. S., & Rosenthal, D. (1992). Ethnic identity in adolescence: Process, context, and outcome. In G. R. Adams, T. P. Gulotta, & R. Montemayor (Eds.),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pp. 145-172). Newbury Park, CA: Sage.
- Phinney, J. S., Cantu, C. L., & Kurtz, D. A. (1997). Ethnic and American identity as predictors of self-esteem among African American, Latino,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6*, pp. 165-185.
- Phinney, J., & Chavira, V. (1995). Parental ethnic socialization and adolescent coping with problems related to ethnic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5*, pp. 31-53.
- Sharma, S., Shimp, T. A., & Shin, J. (1995). Consumer ethnocentrism: A test of antecedents and moderator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23 No. 1*, pp. 26-37.
- Shibutan, T., & Kwan, K. (1966). Ethnic stratification: A comparative approach.

-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Shimp, T., & Sharma, S. (1987). Consumers ethnocentrism: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CETSCAL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August, pp. 280-289.
- Spencer, M. B., Swanson, D. P. & Cunningham, M. (1991). Ethnicity, ethnic identity, and competence formation: Adolescent transitio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Journal of Negro Education*, Vol. 60, pp. 366-387.
- Summer, W. G. (1906). *Folkways: The sociological importance of usage, manners, customs, mores and morals*, NY: Ginn & Co.
- Swanson, D. P., Spencer, M. B., & Petersen, A. (1997).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In K. Borman & B. Schneider (Eds.), *The adolescent years: Social influences and educational challenges* (97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p. 18-41). Chicago: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 S. Census Bureau (2000). *Racial and ethnic classifications used in census 2000 and beyond*. Retrieved August 2, 2005, from <http://www.census.gov/population/www/socdemo/racefactcb.html>.
- Uba, L. (1994). *Asian Americans: Personality Patterns, Identity, and Mental Health*. New York: Guilford Press.
- Umana-Taylor, A. J., Diversi, M., & Fine, M. A. (2002).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of Latino adolescents: Distinctions among the Latino population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7 No. 3, pp. 303-327.
- Vedder, (2005).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ell Being in School; The Role of Students' Ethnic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5 No. 3, pp. 269-278.
- Weldon, S. A. (2006).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olerance for Ethnic Minorities: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of Western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pp. 331-349.

ABSTRACT

The Influence of Korean Ethnic Identity upon the Multicultural Receptiveness of Adolescents

Yang, Kye-Min*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Korean identity and ethnocentrism on multicultural receptivenes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3,140 Korean adolesc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including content related to homogeneous nation identity, cultured nation identity, ethnocentrism, and multicultural receptiveness such as the threat posed by immigrants, assent for giving citizenship to immigrants, and the positive side of a multicultural society. As a result, homogeneous national identity and ethnocentrism had a negative influence upon the multicultural receptiveness, however, it influenced the notion of a cultured national identity positively. Therefore, the result suggests that we analyze Korean national identity discriminately and focus on cultured national identity in multicultural education for Korean adolescents.

Key Words : korean-identity, ethnocentrism,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receptiveness

투고일 : 9월 14일, 심사일 : 10월 22일, 심사완료일 : 10월 22일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